

도도로키 폭포

도도로키 폭포는 시오타 강과 이와야가와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폭포의 기원은 2500 만 년 전의 하타쓰 세일층이라는 퇴적암 위에서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된 화산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용소의 면적은 2,500m²입니다. 도도로키(轟)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울려 퍼지다라는 뜻의 ‘도도로쿠’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폭포의 굉음을 나타냅니다.

도도로키 폭포는 3 단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 2 단의 높이는 각각 3m 이고 아래쪽 1 단은 5m 입니다. 폭포 전체의 높이는 11m 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화사한 배경이 됩니다. 또한, 강의 수심이 얇아 폭포 아래 구역은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용신과 벤자이텐

도도로키 폭포의 용신이 15km 떨어진 시로이시초의 누이노이케 연못으로 이어지는 지하수를 통해 연못에 사는 연애의 여신인 벤자이텐(변재천)을 만나러 갔다는 지역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퍼 올리면서 1958 년에 누이노이케 연못은 말라버렸고 용신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2000 년에 과도하게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이 중단되면서 연못에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신은 다시 벤자이텐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이별 후의 재회에 벤자이텐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동명왕

폭포 중앙에는 부동명왕(산스크리트어로 *Acala*(아시알라))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대승불교의 명왕 중 한 명으로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일본 불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수호신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묘사되는 부동명왕의 특징은 엄한 표정, 악귀를 잡기 위한 왼손의 빗줄, 악귀를 멸하기 위한 오른손의 검, 분노와 걱정을 불태워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등 뒤에 있는 큰 불꽃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인 1944 년, 다이조지 절의 승려는 이 땅의 신성함과 강이 바다로 통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바다 위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부동명왕상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